

정부, 고교학점제 점검TF 구성 정시확대 정책 양립 이목집중

현장 교원·전문가 12인 참여 연말까지 개선방안 마련 방침 “미래교육 변화, 안정성 더할 것”

정부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해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학교별 여건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시 확대 정책과의 양립 가능성도 주목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면 도입 시 마련돼야 할 교원, 시설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새로운 체계를 급하게 도입한다면 학교별 여건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계를 전환하는 제도로 산업 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이어 올해 특성학교에 도입됐다. 현재 국내 일반계고의 84%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중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한 높은 공감대에도 교원의 업무 부담, 학점제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적·인

적 여유가 되는 학교는 타교에 비해 다양하고 질 높은 강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 간 선택권 차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도입 시 여러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없다면 기존 교사에게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교육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도농 간 인적·물적 차원과 학교 여건의 차이 등으로 고교학점제가 도농간 격차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전 교사 확충,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 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결 과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고교학점제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연말까지 개선방안 마련”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고교교육의 현장과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점검 TF는 현장 교원 및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고교학점제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보완해 고등학교 미래교육 체제 변화에 안정성을 더하고자 진행됐다.

정부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시 개별 학교의 학점제 운영 부담 완화, 교육 격차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다만 대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과 어긋나는 기조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교학점제는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과 상반되게 오히려 수능 의존도를 낮춰야 원활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수능 비중이 커질수록 대입에 유리한 과목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고교학점제 방향이 무색해지는 결과를 야기한다. 입시에 대입했을 때에도 고교학점제는 학생부종합이 어울리는 방향성이지만 정부는 정시 확대 정책을 약속해 서로 상충한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정시 확대 정책과 고교학점제는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시 확대 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찾는 선택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오세훈(오른쪽 두번째) 서울시장이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22 세계도시정상회의의 시장포럼’에 참석해 특별 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세계도시 정상회의 참석 서울시-싱가포르, 정책 교류·협력

롯데, 싱가포르 주요 부처 방문 스마트 헬스케어 등 정책 방안 논의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시장은 1일 싱가포르 정부 주요 부처와 만나 건강관리 등 시 핵심정책 분야와 관련된 교류협력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세계 각 도시 시장과 경제·재계·학계 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자리다. 2008년부터 싱가포르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센터(CLC)와 국가개발부 산하 준정부 기관인 도시재개발청(URA) 주관으로

2년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오예쿱(Ong Ye Kung) 보건부 장관, 보건부 산하 건강증진위원회의 운영이사과 면담하고, ‘루미헬스’ 등 공공 스마트 헬스케어 정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루미헬스(Lumihealth)’는 애플워치를 활용한 헬스케어 프로그램으로 2020년 애플과 싱가포르 건강증진위원회의 협업을 시작됐다. 걷기 등 건강 활동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며, 해당 포인트로는 건강식품, 운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대중교통 혼잡도, 미리 확인하고 타세요”

서울시 지하철 등 혼잡도 정보 제공

일상 회복과 함께 이동이 많아지는 휴가철에는 안전한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 혼잡도 정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승객이 적고 좌석 여유가 있는 차량을 타면 코로나19 등 접촉 걱정도 덜 수 있고, 쾌적하게 탑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 지하철 등 차량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 시 집이 많은 휴가철에는 특히 혼잡도 정보를 확인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버스의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서 실시간 도착 및 차량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버스 차내 혼잡도는 여유, 보통, 혼잡 3단계로 나눠 안내하고 있다.

버스 혼잡도는 교통카드 단말기 승하차 정보로 재차인원을 산출하여 송출하며, ‘여유’는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정도, ‘보통’은 입석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서있을 수 있는 정도, ‘혼잡’은 입석 승객들 사이 통로에 승객이 있고, 몸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혼잡도 정보. /서울시

이 맞닿는 정도나 그 이상을 의미한다.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버스정보 검색 시에도 혼잡도를 표기하고 있으므로, 탑승 전 미리 파악해 여유 있는 차량을 골라 타면 도움이 된다.

지하철은 1~8호선 혼잡 정보를 ‘여유’, ‘보통’, ‘주의’, ‘혼잡’ 4단계로 나눠 제공 중이다. 각 전동차 칸별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므로, 차량 내 승객이 많을 경우 여유로운 칸으로 이동하면 더욱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전거 경사로 등 편의시설, 전동 휠체어 승하차 정보 등 지하철 이용 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하은 기자

서울교육청-서울과기대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맞손

AI 융합진로직업교육원 운영 등 협력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기술 분야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더 질 높은 공교육,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제3기 서울교육의 방향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삶의 힘을 기르는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과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학과체험, 진로멘토링 등 다양한 유형의 4차 산업 신기술 분야 진로탐색과 직업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밖 학습경험 제공 ▲직업계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동일 분야 심화학습 지원을 통한 성장 지원 ▲AI 융합진로직업교육원 운영 프로그램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서울시립과학관 ‘기후비상’ 특별기획전 개최

서울시립과학관이 기후위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기획전 ‘기후비상’을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현상이 유럽을 비롯 지구촌을 휩쓸고, 미국과 중국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를 대비해야 할 정도로 폭염으로 인한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등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받는 행사이다.

‘기후비상’은 기후위기의 다양한 증거들과 이 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체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전시회다. 서울시립과학관 메이커스튜디오에서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전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기후위기가 뭐예요? ▲지구의 시그널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변화될 일상을 위하여 ▲메시지 터널 등 6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각 주제들은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기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 전시의 형태다.

/신하은 기자

오늘의 날씨

8월 2일 (화)
음력: 7월 5일

수도권 날씨
26~3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36 | 해질 / 19:40

연천 25/31
동두천 24/30
백령도 24/29
파주 25/30
가평 24/30
서울 26/30
양평 25/30
인천 26/30
수원 26/30
용인 26/30
평택 25/3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미국 은행들, 예금금리 ‘찔끔’ 인상에 막대한 수익 전망
▲ 美 하원 중간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화 230석, 다수당 탈환” /사진 뉴시스

▲ 日 “한국 선박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
▲ 日 정부, 미얀마서 자국민 남성 구속 확인… “조기 석방 촉구”



▲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반격은… “전쟁 3단계 새 국면 진입” /사진 뉴시스
▲ 마다가스카르 마을에서 무장세력이 민간인 공격 32명 사망